베네수엘라 거냥 버려 둘 수 없습니다.

1 월 2 일 오래만에 정던 꾸마나로 돌아왔습니다. 하루일과 중 빵집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. 오후 4 시쯤 나가면 6 시경에야 빵 두개 사 돌아옵니다. 그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. 어뜬때는 아예 빈손으로 돌아옵니다. 가는곳 마다 줄이 깁니다: 은행, 약국, 수퍼마켓 어느곳이나. 공용시장은 돗데기 시장 같습니다. 그래도 푸성귀며 곡물들을 살 수 있습니다. 강어귀에 나가면 생선도 있습니다. 고급생선인 돔 메로 문어 갈치(갈치는 고급어류가 아닌데 한국 수출로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)등은 찾기 힘들고 정어리 아지 조기 광어류는 구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들이 사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할렐루야! 미국에서 유기농(Organic products) 글루텐 프리 제품만 찾지만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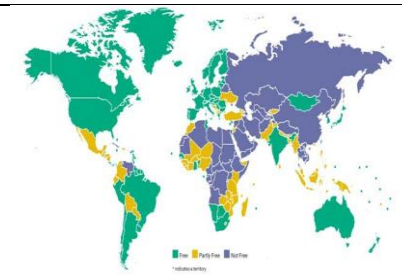
줄서기가 일상생활이지요

수퍼나 약국의 선반이 비었어요

강어귀 생선가개도 비었지요

베네수엘라는 자원보유국이지만 기독교국에서 멀리 뜰어져 남미에서 검은 자주색으로 변화/도배 되었습니다(파랑=기독교국, 노랑=준, 자주=비 기독교국). 오직 주님만이 아시리라. 회복의 길을…

오늘은 빵 두개 사 기쁜 날


베베수엘라 지도색이 검어지다

강어귀 부두에 올라온 광어

베네수엘라 인프레이션은 살인적인 1000% 상희합니다. 그 보다 문제는 물건을 구할수가 없습니다. 자동차 부품 타이어 밧데리 등등… 카라카스 한인침례교회 함준상 목사님이 브라실 쌍파울로로 가시어 1 월 중 3 주일을 섬기며 한인형제들과 교제하며 즐거움 만끽하였지요. 참으로 귀한시간 이었지요. 꾸마나에는 한인가족이 없으니. 뿌엘또라꾸루스 현대중공업 한인들은 언제 방문할지…

카리브복음신학원 섬김이들과 매주 뭏여 2017 학기 학사운영을 상의하다. 4 주째 모이니 끝이 보이는 듯하다. 2 월 10 일 대청소 11 일 등록 및 교제 13 일 개학으로 일정이 잡히다. 아멘!!!

<table>
<tr>
<td>
운영위원들이 학사여정 논의 결정</td>
<td>
서기 호아낀 까르도소 서거 천국에서 만나요</td>
<td>
추모예배 1 월 26 일 목요일 6:30pm</td>
</tr>
</table>

지난 주 호아낀 형제를 천국에 보내다. 모든 사역들을 현지인 들에게 인계하도록 준비하다. 개척한 8 개 침례교회와 신학생들이 개척한 교회들과 카리브복음신학원… 그러나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구나! GSM 선교회 황성규 목사님은 선교사는 은퇴가 없다고 하신다. 단지 가는 선교사 도우는 선교사 후방 선교사가 있을뿐이란다. 이제 할 일이 많아져 더욱 빠빠지나보다. 세(3)나라 섬기자니 1/3 은 베네수엘라에서 1/3 은 쿠바에서 1/3 은 미주에서 가는 선교사로 도우는 선교사로 후방 선교사로 또 선교 도우미로… 주여 능력주시고 건강주시고 기회주시고 힘 주소서!

2017 년 2 월 1 일 정경석 선교사 드림
+58 293-433-1178, 신학원, 집
+58 414-773-1433, 셀
+58 412-305-0190, 셀
미주폰 +1 415-712-6023